

금요일에 미리보는 주간 투자전략

Weekly | 2017. 10.13

시황 김병연(02-768-7574) 시황 조연주(02-768-7598) 경제 안기태(02-2229-6761) FX 김환(02-2229-6761)

주간 주식시장 리뷰

시황 조연주 (02-768-7598)

• 금주 주식시장 리뷰

- **KOSPI 사상최고치 경신:** 추석연휴 동안 글로벌 주식시장의 혼풍에 힘입어 KOSPI 외국인 순매수 강화로 2,470p 선 상회하며 사상최고가 경신. 글로벌 경기 회복, 한국 수출 호조, 3 분기 실적 기대감 등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금융, 헬스케어, 건설, IT, 비철금속 중심으로 상승세 확대
- **제품 파월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가능성:** 11 일(미국시간)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품 파월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도록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달. 옐런 의장보다 매파적인 파월 이사가 연준 의장이 될 경우 금리인상 속도는 더 빨라 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

주간 주식시장 프리뷰

시황 김병연 (02-768-7574)

- **투자전략: 19차 당대회 개막, 중국 경기는 핀셋조정의 지속**
- **KOSPI 주간예상: 2,450~2,500p**

- 상승요인: 양호한 3분기 실적 추정치, 미국 경기 개선, 한국 수출 호조
- 하락요인: 북한 제도발 가능성, 한미FTA재협상, 트럼프 강경발언

• 다음 주 주식시장 전망

- **중국 경제지표 발표 및 19차 당대회 개막:** 다음주는 중국 3분기 GDP, 9월 소매판매, 광공업 생산 등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중국 19차 당대회가 예정(18일~24일).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 상으로 중국 지표는 전월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 중국 19차 당대회에서는 중앙위원의 선출과 5명의 상무위원 교체 등이 단행되고, 시진핑 주석의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정부의 방향을 언급할 예정. 관전포인트로는 교체되는 상무위원의 성향과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임
- 현재로는 리잔수, 자오러지, 왕양, 후춘화, 한쥘, 왕후닝 등이 거론되고 있고, 왕치산의 연임과 천민얼의 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왕양 등이 상무위원이 된다면 시진핑 2기 정부 권력은 더욱 강화되어 개혁의 추진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
- 업무보고의 내용으로는 기존 시진핑이 726담화에서 언급했던 리스크 방지, 빈곤탈피, 오염예방 및 퇴치와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국유기업개혁, 환경규제, IT 인프라 투자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음. 과거 18차 당대회 당시에는 소비중심성장, 도시화 정책 등이 언급되면서 중국소비관련주의 모멘텀에 발판이 되었던 경험 존재
- **투자전략:**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옐런 연설 등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지는 않을 전망. 미국 베이지북 발표에 따라 경기 개선에 대한 우호적 센터먼트 확대될 것으로 판단. 삼성전자 실적 가이드스 발표 이후 단기 차익실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코스피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양호하다는 점에서 건조한 지수 상승 추세 지속 예상

글로벌 Money Flow

시황 김병연 (02-768-7574)

• 금주(10월 5일 ~ 10월 11일) 글로벌 펀드는 선진국, 신흥국 동반 유입 기록

- 금주 선진국 주식형 펀드는 82.3억달러, 신흥국 주식형 펀드는 33.4억달러 동반 유입 기록
- 선진국의 경우 서유럽으로 자금 유입 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일본은 유입 전환을 기록
- 한국 주식형 펀드의 경우 코스피 랠리와 함께 자금 유입 지속 중
- 금주 채권형 펀드는 선진국 37.6억달러, 신흥국 17.0억달러 동반 유입
- 섹터별 펀드 중 원자재, 산업재, IT 순으로 유입을 기록한 반면 부동산은 지속적인 유출을 기록 중

지역별 주식형 자금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주중 증감)

	2017-10-11	2017-10-04	2017-09-27	2017-09-20
All Fund Totals	11,571	5,141	-2,169	2,708
Emerging Market Fund Totals	3,340	625	1,365	2,013
GEM Fund Totals	2,544	309	943	1,399
Asia ex-Japan Fund Totals	669	78	-1	200
Asia ex-Japan Regional	202	-89	277	-122
China	428	9	-135	124
Greater China	-14	41	-123	47
Hong Kong	-2	22	-23	-31
India	36	98	-67	57
Indonesia	-16	-1	-8	-14
Korea (South)	16	122	33	136
Malaysia	6	0	-3	0
Philippines	0	-2	3	3
Singapore	2	-3	-19	-3
Taiwan	-21	-127	47	0
Thailand	34	31	-31	-34
Vietnam	-3	-3	2	-2
Latin America Fund Totals	131	69	329	370
EMEA Fund Totals	-4	169	94	45
Developed Market Fund Totals	8,231	4,517	-3,534	695
Global Fund Totals	6,609	3,856	3,415	1,734
Asia Pacific Fund Totals	410	-197	-1,326	-1,380
Western Europe Fund Totals	855	1,557	1,981	1,764
Japan	349	-324	-1,284	-1,351
USA	437	-656	-7,579	-347

자료: EPFR Global,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섹터별 주식형 자금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주중 증감)

	2017-10-11	2017-10-04	2017-09-27	2017-09-20
Commodities/Materials	859	652	843	283
Consumer Goods	-350	-374	-709	256
Energy	64	359	-662	-343
Financials	427	1730	1369	1128
Health Care/Biotech	-434	369	-123	639
Industrials	660	1309	297	-139
Infrastructure	-28	-27	-59	-110
Real Estate	-273	-214	-526	-277
Technology	443	-65	-49	969
Telecom	38	-70	1	-25
Utilities	-56	377	-35	162

자료: EPFR Global,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경제 Review & Preview

Economist 안기태 (02-768-7205)

1) 경제 리뷰: 외환보유고 감안시 한중통화 스왑 큰 문제 아님

- **한국 9월 외환보유고**: 전월대비 감소했으나, 세계 9위 외환보유고 지위를 유지(3,847억 달러). 한중 통화스왑이 종료됐지만, 외환보유고 규모를 감안하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한일 통화스왑이 종료(2015년 2월)된 이후 원화 0.9% 약세, KOSPI 2.8% 상승.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면, 통화스왑 종료의 의미 있으나 현재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님. 더구나 중국이 기축통화보유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중 통화스왑 종료에 심각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음

2) 경제 프리뷰: 한국, 환율보고서 압박에 대응할 명분 보유

-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10/15 전후)**: 8월 현재 한국의 對美 무역흑자는 연율화 기준으로 180억 달러. 2016년 4월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때 내세우는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는 對美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는 지 여부임. 향후 한국은 미국과 협상시, 조작국이 아니라는 명분이 있음
- **미국 베이지북(지역별 경기상황 판단 보고서) 발표(10/19)와 엘런 연설(10/21)**: 12일 공개된 9월 FOMC 의사록을 보면, 물가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판단은 유보적. 특별히 매파적 이벤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임금 상승률의 서프라이즈에도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美 달러 매수는 줄어들고 있음

FX Review & Preview

FX 김한 (02-2229-6761)

1) FX 리뷰: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원화 강세

- **한국 원화**: 원화는 강세. 연후 이후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세로 전환되며 자금 유입세가 가팔라진 영향. 또한 시장 우려와는 달리 북한 노동당 창건일(10/10일)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점도 원화 강세 요인
- **유로화**: 유로화는 강세. 스페인의 카탈루냐 분리독립 리스크로 약세를 보였던 유로화는 다시 강세로 전환. 스페인 중앙정부 및 EU가 카탈루냐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독립선언을 하겠다고 주장했던 카탈루냐 주정부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독립을 유보하는 등 독립 가능성이 낮아진 영향
- **중국 위안화**: 위안화는 강세. 이달 18일부터 개최되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책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 실제 최근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기준환율을 전월대비 절상으로 고시

2) FX 프리뷰: 원화의 완만한 강세 흐름 예상

- **원/달러 환율 주간 예상 밴드: 1,125원~1,145원**
- 11일 공개된 9월 FOMC 회의 의사록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12월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FF 선물시장에 반영된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확률은 80%에 근접하며 통화정책이 이미 금융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모습. 따라서 향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달러화의 추가적 강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 한편 원화의 경우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나 경기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원화의 강세 압력이 높음. 8월 글로벌 OECD 선행지수가 100.2p까지 오르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미국 및 중국 등의 제조업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 경기가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이는 원화의 강세 요인
-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화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지만 경기 펀더멘털을 반영하며 점진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갈 전망

금주 경제지표 발표 일정

	중요도	Period	Previous	Consensus
10월 16일(월)				
(중) 소비자물가지수 (% , y-y)	★★	9월	1.8	1.6
(중) 생산자물가지수 (% , y-y)	★★	9월	6.3	6.3
(일) 광공업생산 (% , y-y)	★★	8월	5.4	-
(일) 설비가동률 (% , m-m)	★	8월	-1.8	-

10월 17일(화)				
(한) 수출물가지수 (% , y-y)	★★	9월	10.7	-
(미) 광공업생산 (% , m-m)	★	9월	-0.9	0.3
(미) NAHB 주택시장지수 (Index)	★★	10월	64	63
(유) 소비자물가지수 (% , y-y)	★★★★	7월	28.1	-

10월 18일(수)				
(중) 당대회 개막 (18-24日)	★★★★	-	-	-
(한) 실업률 (%)	★	9월	3.8	-
(미) 주택착공건수 (천호)	★★	9월	1,180	1,180
(미) 건축허가 (천호)	★★	9월	1,300	1,230

10월 19일(목)				
(미) 연준 베이지북 발표	★★★★	-	-	-
(유) EU 정상회담 (19~20日)	★★★★	-	-	-
(중) GDP (% , y-y)	★★★★	3Q	6.9	6.8
(중) 소매판매 (% , y-y)	★★	9월	10.1	10.1
(중) 광공업생산 (% , y-y)	★★	9월	6.0	6.4
(일) 수출 (% , y-y)	★	9월	18.1	15.0
(일) 공작기계수주 (% , y-y)	★	9월	45.3	-

10월 20일(금)				
(일) BOJ 구로다 총재 연설	★★★★	-	-	-
(한) 생산자물가지수 (% , y-y)	★	9월	3.2	-
(미) 기준주택매매 (% , m-m)	★	9월	-1.7	-0.9

주: 1) 현지시각 기준, 현지시각 기준

2) 별 개수는 중요도를 의미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